

대행 스님

뾰죽한 입으로 뾰죽하게 말하지 말고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을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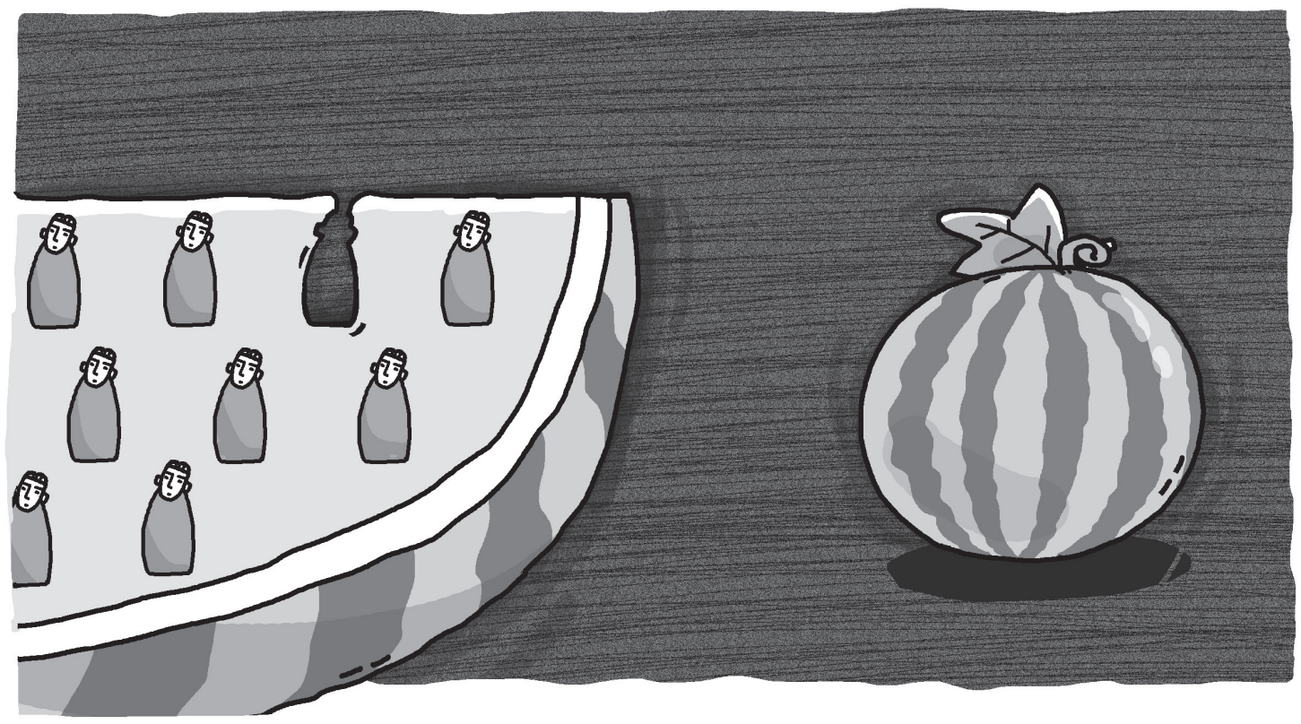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공생(共生)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화(共食化)하고 있고 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 한자리를 하고 있는 까닭에,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로서 서로 헤어졌다가 만나고 만나고 헤어지고, 오늘도 한 장소에서 또 이렇게 만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분잡하게 다니고 있는지 잘 아십니까? 지금은 세계적으로나 만방에 다 도제 양성(道弟養成)이 시급한 시대라고 봅니다. 타력 신앙으로써 기복으로만 맹종하고 항상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광대무변한 인간의 도리 또는 법신(法身)의 도리, 부처 될 도리로서 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더할 수 없는 고등 동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만이 이 세계를 볼 수 있고, 세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체제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게끔 리드해 가면서 세계를 조절해 나간다면 지금 공산주의니 중도니 왈가왈부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평화롭게 정상적인 체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공업도 발전하고 또 의학도 발전했지만, 여러 가지 문화 문명을 다 꽃피웠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또 그런 반면에 뭐든 오염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나 여러 생물이 오염으로 인해 그냥 스러져 가야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친다면, 인간다운 도리를 못 하는 우리를 어디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비록 한 철을 지내다가 가지만 그 시기에 얼마만큼 인간답게 살아나가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지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듯이, 이거는 아주 고고한 말이 아니라 무식하지만 순박한 얘기로서 한마디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작년 씨를 심어서 올해 추수를 해 들이듯이 여러분이 다 수박이라면 작년 씨로써 수박이 된 거지 작년 씨가 없이 어떻게 수박이 됐겠습니까? 여러분은 작년 씨로 인해서 수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나 물어보십시오. 작년 씨를 바깥에서 찾을 수 있겠나. 바로 씨와 살과 껍질이 다 한데 합쳤습니다. 혼합이 돼서 수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씨가 있지 딴 데 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저런 식물이나 또는 흙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또는 공기의 생명도 다 이 씨로 인해서 나온 것이죠. 근본 원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원소를 발견하고자 할 때는, 수박은 자기 안에 들어 있는 씨로 인해서 생겨났고, 그 수박을 일체 중생에게 다 먹이고도 그 씨가 되남아서 그 씨를 또 심고 또 먹이고 또 심고 또 먹이고 하니,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다는 걸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생겨난 것만큼 먹고 살 수 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살 수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먹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씨를 무조건 의심을 하기 이전에, 의정을 만들어 준다 이러기 이전에 무조건 자기 수박 속에 씨가 있다는 거를 미리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스스로 의정이 나는 거하고 만들어서 의정을 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더라도 그 수박에 의해서, 나고 드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내고 들이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 놓고 가는 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침착하게 무심(無心)으로써 수박씨를 싹 틔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도(無心道)로써 그 수박이 싹이나 가지고 길러져서 거기서 수박이 열려. 열려 가지고 그 수박이 무르익어서, 여러분한테 그저 내주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자라나게 되죠. 아마도 거기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청정(淸淨) 자재천궁(自在天宮)'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도리를 지금 이렇게 알고 또 거기다 놓고 갈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점수나 돈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또 내 씨가 진짜 있다고 믿고 거기 놓고 돌아갈 때, 스스로서 둘이 아닌 도리가 나오고 거기서 유(有)와 무(無)의 세계가, 이 세상이, 우주가 그냥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서야 의정이, 대 의정이 나는 겁니다. 그때 의정이 적든 크든 다 나는 거지, 내가 우정 의정을 내서 의심하는 것은 그거는 빈 맷돌에 물건 넣지 않고 그냥 돌리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그 차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으로 이 도리를 알아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우주 법계에 두루 할 때에, 저런 화성에도 그렇고 딴 혹성에도 다 생명은 있지만, 생명이 남의 눈에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재 요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지금 이 세계가 서로 왈가왈부하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조절하고 조절치 않고, 떼어 놨다 붙였다 붙였다 떼어 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을 리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세계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의 주먹 가운데에 딱 들어 있다 이겁니다. (중략)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오염 물질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되질 않고 사람들이 모두 잘못만 저지르고 싸움이나 일으키고 이러니 이걸 어떡하느냐."라고. 정치해 나가는 것도 뭐 어떻고 어떻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죠. 내 생각에 속으로, 잠자코 있으면서 하는 소립니다. '야, 모두가 한생각에 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도리거늘, 일체제불과 일체 중생이 다 한마음에 뭉쳐서 한생각을 낸다면 다 해결 날 수 있을 것인데, 왜 타의의 딴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 원망해 봤자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을 해 보시죠? 조금 잘 돌아가면 아버지가 수월하고 또 그 자식들도 부인도 일가친척들도 다 "아휴, 저이는 근면하고 아주 착실하게 잘 산다." 하고, 그게 망해 가지고 잘 안될 때, 그럼 속상해서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은 "저건 저러니까 저렇게 됐지." 이러죠. 부모는 안타까워하겠지만 자식들이나 일가친척들이나 부부지간에도 그거는 금이 가고 말아요. 당신은 뭘 잘했다고 술만 먹고 그러냐 이러죠. 이 속을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알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더 따뜻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산하대지의 어머니가 된다면,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바로 태양의 아버지가 된다면…. 또는 다 키워서 거름도 잘 먹일 수 있고 태양인 아버지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돼야만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한테도 그런 영향을 주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일은 표시도 나지 않으면서도 야, 밥해야지, 먹어야지, 빨래해야지, 치워야지 또 딴 사람이 오면 뭐 어쩌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 엉덩이가 무겁고 다리가 무겁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남편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받아 줘야 하는 이치가 있죠. 그리고 심부름해 줘야 하죠. 그럴 때에 그 말 한마디가 약이에요.

아주 "여보!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 18면으로 계속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